

드라마 '이산'서 화원으로 출연 중인 전남대 한국화 전공 학생들

“도화서엔 우리가 있소이다”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한 관청〉

월·화 드라마 지존을 지키고 있는 MBC 드라마 '이산'은 '허준' '대장금'의 이병훈 PD 작품이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정조대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산'의 주요 공간 중 하나는 드라마에서 조망되지 않았던 '도화서'. 정조(이시진 분)의 연인 성수연(한지민 분)이 일하는 곳으로 설정된 도화서는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한 관청이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 전공 학생들이 한지민, 지상철 등과 함께 도화서 화원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화제다.

이번 출연은 이병훈 PD의 의뢰를 받은 광주에 총 최규철(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회장이 같은 대학 이규용 한국화 전공 교수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다른 대학과 학생들을 섭외할 수도 있었지만 이병훈 PD가 전통 남종화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남종화의 고장인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미술 장르에 비해 친체 상 태인 전통 미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구요.”

15명의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용인과 부안 세트장,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 낙안읍성 등지에

서 단체 촬영을 진행했고 개강 후에는 개별 촬영에 임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동문 화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도화서의 화원이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수업을 붙이는 등 남장을 하고 출연했다.

학생 뿐 아니라 이 교수도 카메라 앞에 섰다.

한지민·지상철 등 함께 촬영

의례도·산수화도 직접 그려

남종화 알리고 색다른 체험

이 교수는 비록 방송에서는 손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무척 긴장해서 촬영했다며 웃었다. 또 같은 한국화 전공 교수인 허 진씨는 산수화 그리는데 대역을 맡기도 했다.

드라마 초반에 등장했던 의례도, 행렬도, 화조도, 산수화 등과 두부미와 학 등 대부분의 그림은 광주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보낸 작품들이었다. 또 제작진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림들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아무래도 촬영중 가장 힘든 건 분장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또 촬영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TV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극히 짧거나 때론 통째로 편집되는 경우도 있어 조금 허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자신들의 학교가 선택되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비디오 아트와 설치 등 요즘 각광받고 있는 미술 장르에 비해 조금은 외면받고 있는 한국화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즐거웠다. 또 TV에서만 봐 왔던 연예인들을 직접 보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큰 재미였다.

지금까지 4번 정도 촬영했고 두 차례 TV에 등장했다는 대학생 이선희씨는 “연회를 벌이는 모습을 그리는 장면 등에서는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추억을 만든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극 전개상 김홍도가 등장하게 되는 터라 도화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예정. 학생들은 아직 내년 2월 드라마 종영 시까지는 수시로 드라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만 들으며 미술사를 접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도화서의 화원 역할을 해 보면서 색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라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재미있어 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드라마 '이산'에 출연한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학생들이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신나는 청소년들의 영화 축제

한국청소년영상제 21~22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영상을 사랑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제 9회 한국청소년영상제가 21~22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이번 영상제에서는 두달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1차로 선정

된 '롤러의 배신' '산란주의' 등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본선 진출작들이 상영된다.

또 제1회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대상 수상팀인 MOTU와 밴드 레모니 마카로니, 풍물 그룹 '일

수'는 신나는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 그밖에 행사 기간 중에는 영상자료 전시회와 영화작품포스터전, 우수초청작 영화 상영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되며 조선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 지역 영상 관련학과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눈에 띄는 행사는 예비 영화인들과 시네 카드들이 함께 하는 영화 캠프인 'C.T.' 각 작품의 감독 및 스태프 타지에서 온 참가자들과 광주 지역의 중·고·대학생,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영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062-368-80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과 사물 얽히고 설킨 인연

한국화가 배현철씨 개인전

20~26일 무등갤러리

한국화가 배현철씨의 그림에는 줄기와 가닥으로 엮인 DNA구조가 등장한다. DNA에는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원형질이 들어있다. 배씨가 DNA 형상으로부터 읽어내고 그림으로 풀어낸 것은 얽히고 설킨 인연이다.

배씨는 이같은 자신의 작업을 '골레-대물림'으로 명명한다. 20~26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각각 각색의 색점들로 이뤄진 인연의 사슬을 풀어낸 작업이다.

사선과 빗금들이 어우러진 '골레-대물림' 연작은 현대인들이 복잡한 삶에서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사람·사물과의 인연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림에 촘촘히 찍힌 점들은 수많은 사람, 복잡하게 얽힌 인간사의 문제를 투영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인연에 주목하는 작가는 유별나게 자신의 손마디가 짧



'골레-대물림'

은 것은 '집안의 내력'으로, 화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혜택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한국화 대전,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선묵화, 나무화, 광주청년작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앙의 빛을 찾아나선 순례

한국화가 오창록씨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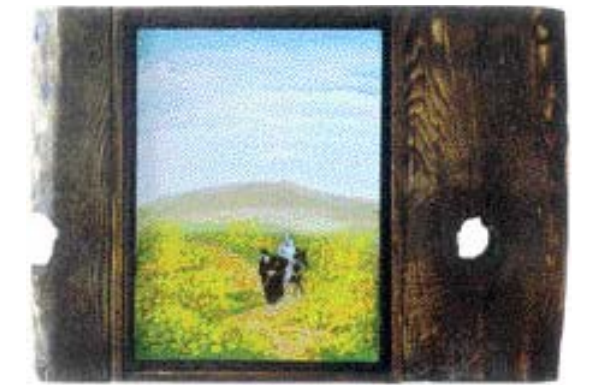
19~25일 서울 평화회관

한국화가 오창록씨가 자신의 신앙을 캔버스에 녹여낸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빛을 찾아나선 순례'를 주제로 19~25일까지 서울 평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오씨는 화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과 종교를 표현한 작품을 보여준다.

오씨는 동양의 정적인 감성과 직관을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성화(聖畵)를 바라보는 작가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또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액자를 동양적인 목재로 선택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호남대 미술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오씨는 광주시전 최우수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피신'

전남도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문의 02-727-2336~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무용계 을 한해 갈무리

20일 광주문예회관서 '송년 회원의 밤'

올 한해 광주 무용계를 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사진)는 20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송년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 무용, 재즈,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김옥희 무용단의 '태평성대', 문현화 M 댄스 아카데미의 '카니발-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정혜경 무용단의 '체인지', 서영무용단의 '소리의 불빛', 박진수 무용단의 '개입의 법칙', 김미숙 하나 무용단의 '강강술래', 그랑 무용단의 '라이프 스토리', 김성희 무용단의 '드림', 광주시립무용단의 '호두까기 인형' 등이다.



또 무용협회는 20일까지 자신의 류 바자회를 진행,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양림교회와 대한사회복지회 미혼모 센터 '우리집' 등에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연과 함께 열리는 올해의 무용인상 시상식에서는 송준영 조선대 명예교수가 (사)한국무용협회 대상을 수상하며 정혜경(박금자 무용상), 최영(광주무용협회 무용인상), 박진수(광주무용협회 무용상), 김유미(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씨 등이 상을 받는다. 문의 062-674-26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a banner with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columns of movie listings for different theaters like Megabox, Enter Cinema, and Cineplex. Each colum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